

제12회 전국 서당문화 한마당대회 축하

자 승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예술문화와 충절의 고장인 남원에서 ‘제12회 전국 서당문화 한마당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족문화의 전승을 바탕으로 전통서당문화의 진작을 위해 진력하시는 서당문화진흥회 한양원 이사장님의 헌신적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어느덧 12회를 맞는 이 대회가 명실상부한 민족문화의 한마당 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남원의 자랑이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은 숭한 외침에 굴하지 않고 민족 고유의 문화를 곳곳하게 지키며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켜왔습니다. 비록 일제의 문화적 탄압으로 인해 아름다운 전통이 잠시 단절된 적이 있었고, 해방 이후 서구 문화의 급속한 유입도 있었지만 우리 전통 문화의 근간은 미래를 내다보는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승되어 왔습니다.

최근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이 입증하듯이 한국의 문화와 그 근원인 우리의 전통 문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찬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옛 성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경전을 외우며, 한시와 서예로써 조상들의 숨결을 느끼는 이 체험들이 곧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아름답게 계승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할 것인지 이끌려 갈 것인지를 가늠하는 요인은 인성의 완성입니다. 인성의 불안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미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서당문화와 한자교육이 왜 필요한지와 그 의미를 뚜렷하게 해주는 것이며, 우리 선조들이 그래왔듯이 평생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근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전국 서당문화 한마당대회’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한양원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국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참가자들의 열정과 관심을 보며 우리 전통문화가 앞으로도 튼실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하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모두 함께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4. 14.